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 제57주기 8차 대전산내학살사건 희생자 개토제 및 위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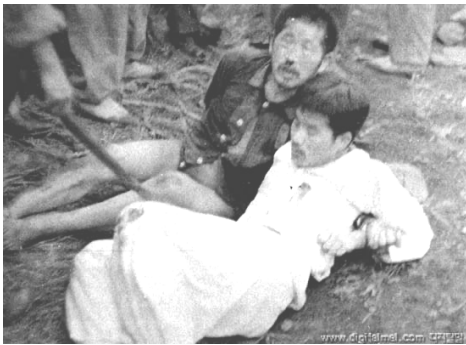
◆ 일 시 : 2007. 7. 1일(일) 오전 10시~13시

◆ 장 소 : 대전 산내 학살지 현장



- 주 최 : 대전민간인희생자대책회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 주 관 :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미군 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대전충남본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충남대학교 박물관, 충북대학교 박물관

아버지, 오늘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



...

이제는 화해와 상생입니다 !



## 산내학살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제 순서

사회 : 성원식(산내골령골 유해발굴단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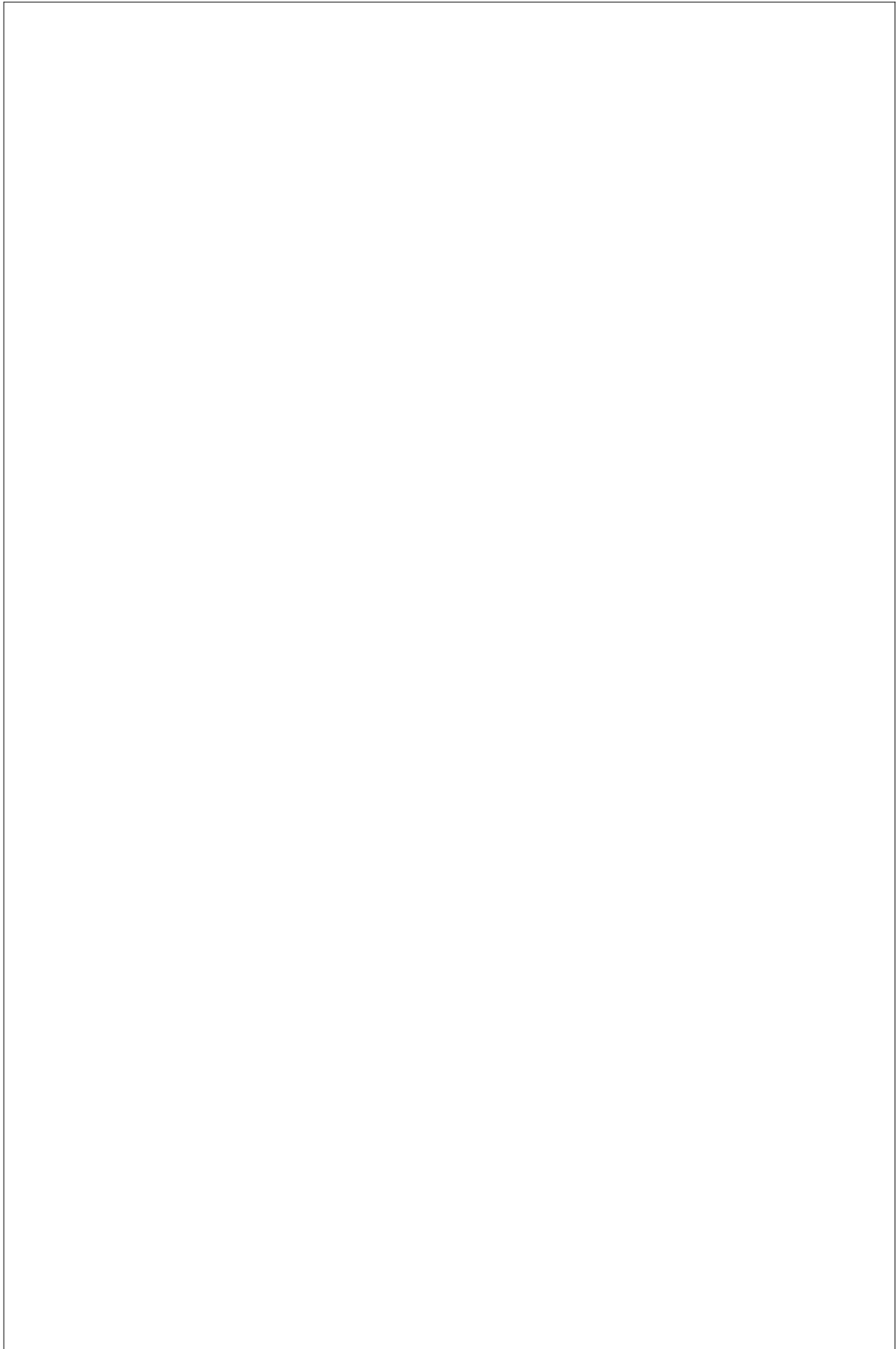
순서	제 목	소요시간	담 당	내 용	기설(음향)	비고
1	개제선언	10:00~10:05	사회자	박순발(산내골령골 유해발굴단 책임연구원)		
	목 념			성원식(산내골령골 유해발굴단 연구원)	배경음악1	
2	헌 작	10:05~10:15	초 헌 (고 축)	김동춘(과거사위원회 상임위원)	배경음악2	
			아 헌	박순발(산내골령골 유해발굴단 책임연구원)	배경음악3	
			종 헌	김종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 송병기(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제주지회장) 장준표(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여순지회장)	배경음악4	
3	인사말	10:15~10:25	1	송기인(과거사위원회 위원장)		
			2	박선주(유해발굴단 조사단장)		
			3	김종현(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		
4	경과보고	10:25~10:30		최상훈(과거사위원회 집단희생조사국장)		
5	내빈소개	10:30~10:35	사회자			
6	설 명 회	10:35~10:45		발굴기관 담당자		
7	시 삽	10:45~10:55		주요 내빈 및 유족 대표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07년 유해발굴**

- 대전 동구 낭월동 13번지 및 골령골 현장설명회 -

주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유해발굴조사단

주관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충남대학교 박물관)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07년 유해발굴

- 대전 동구 낭월동 13번지 및 골령골 현장설명회 -

## - 목 차 -

1. 개요
  - 목적
  - 범위와 기간
  - 특성
  - 수행기관 및 역할
2. 추진일정
3. 향후 추진계획
  - 감식 및 분석
  - 사후처리
4. 산내 골령골 일대 유해발굴 추진계획
5. 기타

## 1. 개요

### ● 목적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희생 실태 파악
- 유해 발굴을 통한 사건의 진실규명
- 향후 국가 주도 유해 발굴의 정형성 확립
- 위령 화해사업의 기초적 토대 마련

### ● 범위와 기간

- 2007년 5월부터 2008년 1월까지
- 대전시 동구 낭월동 13번지 및 산내 골령골 외 3개소

### ● 특성

-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 과정
- 위령 화해 사업의 토대

### ● 수행기관 및 역할

분야	대상	기관	역할
주관	사업총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규명· 위령 화해사업의 토대 마련 · 사업계획 수립과 발굴지 선정

발굴 본부	업무총괄	충북대학교박물관	· 사업계약, 유해발굴 사업 업무 총괄
유해 발굴	대전 산내 골령골	충남대학교박물관	· 대상지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 실시
	충북 청원 분터골	충북대학교박물관	
	경산 코발트광산	경남대학교박물관	
	전남 구례군 봉성산 공동묘지	한양대학교박물관	
유해 감식 및 관리	발굴된 유해 및 유품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발굴된 유해의 체질인류학적 분석과 보관
인문사 회	인문사회과학 적 연구	충북대학교박물관	· 사건자료, 관련자 구술증언 자료수집, 연구

## 2. 추진일정

### ● 연구수행 일정

구분		조사일정								비고
공정	세부공정	'07 6월	'07 7월	'07 8월	'07 9월	'07 10월	'07 11월	'07 12월	'08 1월	
기초 조사	문헌 및 관련자료 검토									
	지역주민의 증언수집									
	현지 사전 답사									
	발굴단 교육									
	조사 착수 준비									
현지 조사	유해매장지 발굴조사									
	유해수습 및 정리									
	현장설명회 개최									

유해 감식	각 유적의 유해 취합									
	유해 감식									
	DNA 감식									
결과 보고	보고서 작성									
	납품물 제출									
	유해 안치									‘08.8.30 까지

### 3. 향후 추진계획

#### ● 감식 및 분석

- 완전유해 및 부분유해는 인류학적 감식을 실시하여 키, 나이, 성별, 인종구분, 피살 원인 등의 확인
- 감식된 전체 유해를 바탕으로 사망 최소 개체수 산정
- 완전 유해의 경우 DNA샘플을 채취하여 보관
  - ※ DNA 검사의 경우 예산, 유족의 유무 및 입장, 발굴된 유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구례군 봉선산 공동묘지 유해만 선행 실시)

#### ● 유해 보존 계획(안)

발굴 후 감식기간	유해 발굴 후 감식 기간 동안의 안치를 말하며, 충북대 유해 감식 및 관리단 연구실에서 보관 ('08년 4월까지 보관예정)
임시안치	검사를 마친 유해에 대해 위령화해 사업 및 해당사건의 <b>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보존안치</b>
영구안치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후 본격적인 위령화 사업 계획 속에 수립된 보존 안치

- 신원이 확인된 경우 연고자와 협의 후 인계
- 임시안치 계획 : 시·도 광역 자치단체별로 임시안치소를 선정해 보관하는 것을 계획 중
- 사건의 진실규명 및 위령화 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원형 그대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산내 골령골 일대 유해발굴 추진계획

조사 일정	세부내용	비고
6월	8 ~ 9 ◦ 유해발굴조사단 워크샵 실시	
	18 ~ 23 ◦ 조사 착수 준비	
	25 ~ 30 ◦ 현장 설치, 발굴지 별목(3, 4, 5, 7 지점)	
7월	1 ◦ 개토제 · 발굴 설명회 및 위령제 개최	
	◦ 현장 현황 측량(위치, 면적 등) ◦ 그리드 구획, 탐색트렌치 설치 ◦ 확장 제토 및 층서적 발굴, 유해발굴 및 필요시 실측도 작성	발굴본부보고사항
8월	◦ 유해 개체별 수습과 세척 및 유골출토 상황 기술 ◦ 수습된 유해는 개체별 보관(충북대 유해 감식단 이동 - 월 2회) ◦ 일체 발굴 상황에 대한 비디오 및 사진 촬영(슬라이드 · 흑백 · 칼라사진)	1. 발굴중간보고회 · 자문회의 개최 2. 발굴後발굴최종보고회 개최 3. 일일 및 월별로 추진 상황 보고
9월	◦ 발굴 보고서 작성 및 용역 결과물 납품	
10월		

#### ◎ 상세 발굴 지점



사진 1. 교회 쪽에서 바라본 3·4·5 지점



사진 2. 유해매장 추정지 3·4·5 지점(동쪽 언덕에서)



사진 3. 유해 매장 추정지 7지점

※ 추정 매장지 6지점은 토지소유주 문제로 금번 발굴에서 제외

## 5. 기타

- 유족 및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구술증언 확보
- 유족 관람 공간 설치
- 유해발굴 작업지와 세척, 분석 작업장에 대한 출입은 통제
- 언론 공개와 촬영 가능 여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협의해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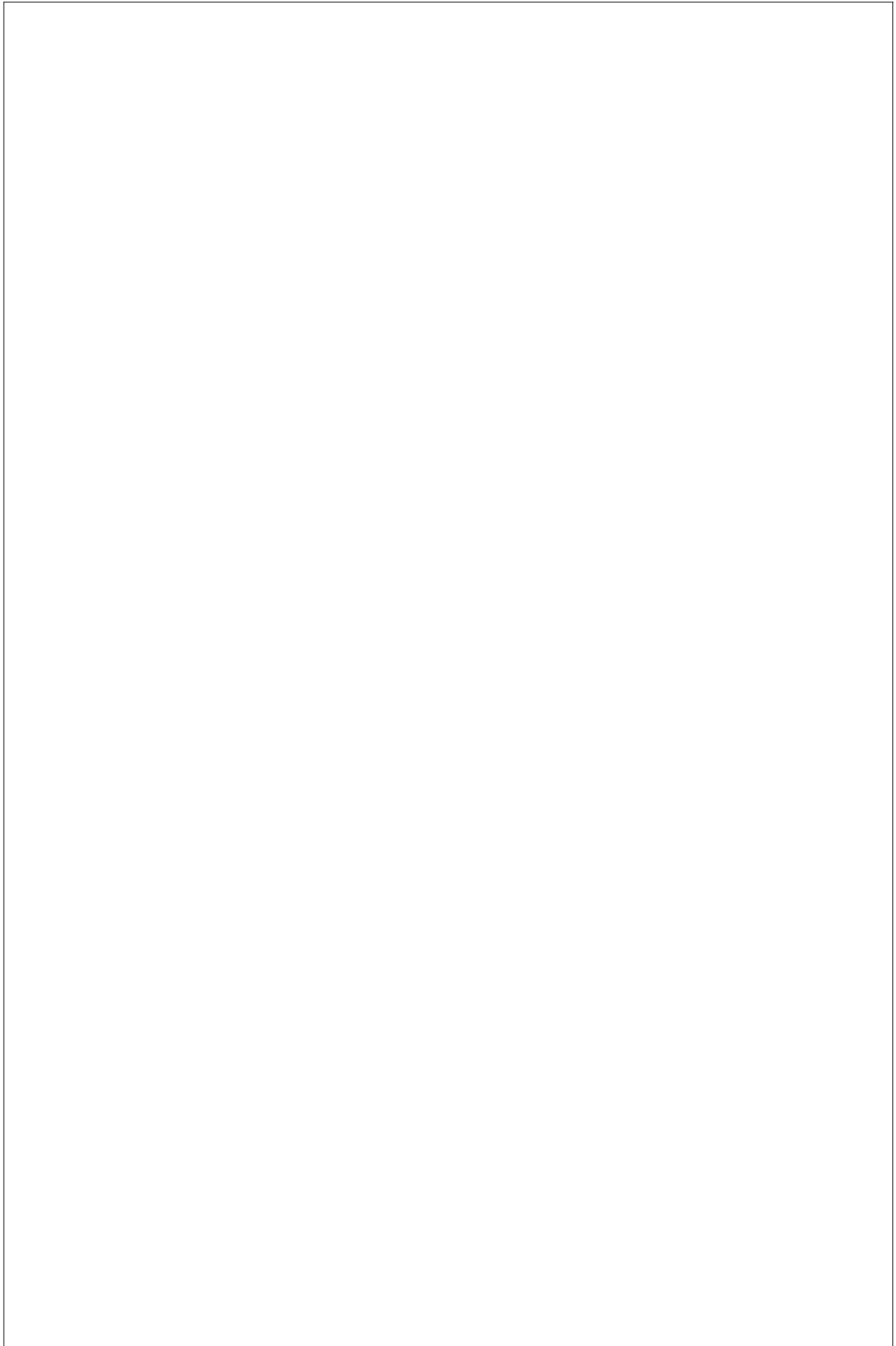
## **제57주기 8차 대전산내사건 희생자 위령제**

주최 : 대전민간인희생자대책회의 /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주관 :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대전충남본부





## 제57주기 8차 산내학살사건 희생자 위령제 행시순서

### ▶ 1부 / 합동위령제 식순

사회 :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순서	제 목	소요시간	담 당	내 용	기술훈양	비고
8	사전공연	10:55~11:10	조희열	조희열 전통춤보존회	배경음악6	
9	개제선언	11:10~11:11	사회자	김종현 유족회장		
10	헌 작	11:11~11:20	초 헌 독 축	김종현 유족회장 이영구 (유족회원)	배경음악7	
			아 헌	송병기 제주유족회장	배경음악8	
			종 헌	장준표 여수.순천유족회장	배경음악9	

### ▶ 2부 / 추모식 식순

사회 :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순서	제 목	소요시간	담 당	내 용	기술훈양	비고
11	경과보고	11:20~11:25	사회자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배경음악7	
12	내빈소개	11:25~11:30	사회자	참석내외 귀빈 소개	배경음악8	
13	추 도 사	11:30~11:50	추도사		배경음악9	
14	추 도 시	11:50~12:00	회 원	신순란, 전숙자(유족회원)	배경음악10	
15	유족대표 인 사	12:00~12:05	유 족 대 표	김종현 유족회장	배경음악11	
16	헌 화	12:05~12:30		다함께	배경음악12	

### ▶ 3부 / 중식

## 햇빛 들거든

신순란(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회원)

가야 할 길이라면 기꺼이 가겠노라  
부모자식 뒤로하고 떠나려니  
이보다 더 큰 죄인이 어디 있으랴.

밝은 세상 만들려 했던만  
꺾이고 꺾여  
짓밟힌 청춘

줄줄이 뭉뚱 묶여  
불꽃 튀기는 탄알 가슴에 안고  
중이접삼 피로 물들 때

가슴에 솟구치는 고동소리  
왜 이리  
멈출 줄 모르는가

육신은 찢기고 찢겨 흔적이 없어져도  
혼을 다해 사랑했던 내 조국은  
나를 기억하리라

죄라는 명목으로 묶어 두었던 많은 사슬들  
세상에 햇빛 들거든  
묶인 죄 사슬 하나 하나 풀어주소서



## 참회할 줄 모르는 동포여

전숙자(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회원)

웬 말이오 골렑골의 살육현장  
망나니는 피로 물든 정복입고 총 춤추고  
아비들의 비명소리 골렑골이 떠나가네.  
어떤 사람 말 한마디 아비 목숨 허공에 뜨고  
첫 돌 지난 어린 것 신세 시궁창에 처박혔네.

누구네 선산에는 갓비에 망부석에 들레석이 모자라  
시신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아비 죽어 반백년 시신조차 모실 수 없어  
갈갈이 찢긴 가슴 등에는 주홍글씨  
안고 지고서  
흐르는 눈물 가슴 가슴마다 묻어야 했소.

골렑골 산하 골짜기마다 유골밭으로 만든 사람  
국립묘지 좋은 자리 길게 누워  
오고 가는 국경일에는 온갖 대접 다 받건만  
우리는  
꽃 피고 새 우는 봄이면  
농기계 밭뿌리에 부서진 유골 조각을 부여안고  
절규하는 몸부림을 보았는가

저 남쪽 나라 밀림 속에 식인종들도  
제 형제 동포는 알아보거늘

하물며 이 땅에서  
죽은 자는 백만이 넘건만  
죽인 자는 모두 다 어디가고  
단 한사람도  
진정 참회할 줄을 모르느냐.

## 유족대표 인사

대전산내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5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의 억울한 죽음을 못 잊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위령제를 찾아주신 유족 여러분들, 바쁘신 일정에도 원근 각처에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유족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전산내학살 사건의 진상이 부분적으로나마 세상에 알려지고 슬픔과 울분을 참고 조출하게 마련한 위령제를 개최해온지도 벌써 여덟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편린들이 햇살을 받으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고인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구의 지시에 의해, 무슨 이유로, 언제,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끌려가 희생됐는지 정확한 진상은 감춰진 채 그대로이고, 피해자들 또한 어떤 두려움에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고 여전히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관련특별법이 2005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앞으로 누가 이 같은 광란의 학살극을 주도했는지, 도대체 어떤 이들이 누구의 손에 끌려가 흙더미에 묻혔는지, 이 같은 학살극을 미국은 왜 사전에 알고도 저지하지 않았는지 등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의 조각들에 대한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 복원해 내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진실을 복원해내기 만들어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늘 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개토제를 거행함으로써 우리 유족들의 57년 한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아픔을 보듬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대 규모로 민간인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이 자행된 이곳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에는 애써 주민의 고통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과 피해를 당한 원혼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고통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노력에 침묵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죄악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선량의 다수의 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위령제는 자치단체와 유족이 참석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추모하면서 과거의 비극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대전광역시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진상규명 작업은 누구를 벌하려하는 것이기 보다는 진실을 밝혀 갈등과 반복의 역사적 긴 장막을 걷게 하고 화해와 통일을 꽃피우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발굴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가 적극 동참하고 지원하고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엄연한 학살극의 실체를 확인하고도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불성실하고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는 대전광역시의 태도는 역사 앞에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더불어, 대전산내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명예회복이 되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7차 위령제를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위령제 행사준비를 위해 여러모로 애쓰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7. 1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 김종현

## 祝文(축문)

서기 2007년 정해년 7월 1일 대전 산내사건 희생자 유족회 대표 김종현은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삼가 아뢰옵니다.

지금으로부터 57년 전 서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2주 만인 7월 첫째 주 초일부터 대전형무소 수감자인 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 등 무고한 민간인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의 불법적인 만행에 의하여 이곳 대전 산내 골령골에 끌려와 7천 여 명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참살당한 7천여 영령들에 그 동안 저의 산자들은 57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도록 영현들의 그 때 그 억울하고 원통함을 해운해 드리지 못 한 죄 더욱더 뉘우치며 영현들 앞에 용서를 비웁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이승만을 비롯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40여 년 간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는 입도 뺏긔 못한 채 슬픔과 분노를 가슴에 안고 죽은 듯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뜻 있는 국회의원, 학자들, 종교인, 법조인 등이 중심된 인권운동 시민단체들과 전국 유족들이 합심하여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 늦었지만, 2005년 5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기구로 출범하여 여러분들의 해원을 위한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1일 오늘 개토제를 시작으로 유해를 발굴하여 편안히 모실 유택을 마련하고, 여러 영현님들 명예회복을 진행 중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 영현들의 원통함을 해원하시고 편히 쉬실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지난날의 무력하고 무성의했던 저희들의 죄를 다시 머리 숙여 용서를  
빌며 영현들의 해원안식을 간절히 축원하오니 감응하시옵소서.

삼가 구천을 해매는 영현님들 해원 안식 하옵심을 축원하옵니다.

2007년 7월 1일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 일동

# 추도사

(님들이 희생이 밝혀지고 규명되길 바라며...)

존경하는 4.3유족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저는 오늘, 억울하게 희생되신 구전을 해매는 대전 골령골 영령님들 제단 앞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눈물과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오신 유족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희생자 위령제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국회의원님, 관내 기관단체장님, 그리고 제주4.3 대전, 순천, 여순 관련유족회원 여러분, 시민사회단체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 올립니다.

대전 산내 학살사건 희생자 영령들이시여!

이곳은 영문도 모른 채 광기 들린 자들이 만행에 의해, 한국전쟁 발발로 이곳 골짜기에 무차별 총살 처형하여 암매장 된 학살터 입니다.

또한 님들께서 묻혀있는 이곳에는 지금 교회 건물을 신축하다 유족들의 반발로 중단된 상태이며, 조그마한 구덩이를 파도 유골이 출토되어 유족들은 분노케 하는 장소이며, 제주4.3관련 수형인 300여명이 희생자가 묻혀 있다고 밝혀진 곳이기도 합니다.

행방불명인 수형인 희생자 영령들이시여!

그리고 4.3유족회원 여러분!

역사는 하나하나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님들이 반세기가 넘도록 묻혀 잠들고 계신 곳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는 유해발굴에 따른 개토제가 봉행되어 본격적인 유해발굴이 이루어지며  
님들이 죽음이 진실이 밝혀지고 규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4일 868명이 4.3희생자로 결정이 되었으며, 그래서 무기수, 사형수를  
포함 희생자 13,546명이 4.3희생자로 결정되었습니다.

4.3희생자 여러분!

또한 국회에서 4.3특별법이 개정되어 희생자 추가신고 실시와 유족범위 확대, 그리고  
4.3평화인권 재단 설립 및 설립 예산을 정부가 출연하는 법안이 개정 통과되었습니다.

내년 2008년은 4.3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 4.3해결과 평화의 섬 구축에 힘을 모읍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제주4.3평화공원에 님들이 혼백을 모셔  
서 표석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노여움과 한을 푸시고 영면하시어 신의 가호와 인도를 간절히 바라웁니다.

오늘 대전 산내 학살사건 위령제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위  
령제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유족 여러분이 건승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1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김 두 연



## 추도사

억울하게 희생되신 영령들께 머리 숙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영령들께서는 제주4.3사건 당시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시다가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더불어 이곳 골령골 일대에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950년 7월, 약 삼백여명의 제주출신 수형인들이 이곳으로 끌려나와 집단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묻히신 영혼들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아직껏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 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전국형무소 순례 및 수형 희생자를 위한 진혼제를 주최하는 이 유도 바로 이 까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먼 걸음을 함께 하신 참가자 여러분!

올해 1월 24일에는 그동안 우리 4.3유족들과 도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제주4·3특별법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는 4·3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 확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발굴과 4.3평화재단의 설립 기금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5일,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4.3사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추가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망자, 행방불명자 및 후유장애자뿐만 아니라 수형인까지 희생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수형인이라는 이유로 영령들에게 반세기 넘게 낙인찍혔던 그 불명예가 소멸되고 해원의 새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형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족쇄를 차고 살 수밖에 없었던 유족들의 고통도 이제 봄눈 녹듯 해소되고 있습니다.

진혼제 참가자 여러분!

제주4·3의 해결과정은 이제 전국적인 과거청산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비극의 역사인 제주4·3을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승화시켜낸 바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이런 힘들이 모여져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하였고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4·3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3평화재단’ 설립과 유골 발굴 및 유적지 정비와 제주4·3평화공원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들을 비롯한 1백만 제주도민 여러분의 뜻과 노력을 하나로 모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신원하고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며 화해와 상생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갑시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두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령들이시여.

이제 반세기의 한을 풀고 영면하소서.

2007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 추도사

초록 녹음이 짙어가는 한 여름입니다.

오늘 산내 골령골 학살 58주기를 맞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죽음을 맞으신 영령들이시여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추도의 글을 바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죽어야 할 목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셀 수조차 없는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하늘이 보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이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빨갱이”란 누명으로 죽임을 당하고, 편견과 차별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행방불명되어 주검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그렇게 지금까지 유족의 가슴에 통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통한의 역사를 거둬내기 위한 어려운 일보를 내딛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넘게

다시 살려달라는 것도 아닌데, 학살한 사람들을 같은 죽음으로 벌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인데, 그래서 올바르게 역사를 기억해 달라는 것뿐인데...

오랫동안 외면당했던 진실을 향한 우리의 외침이 비로소 들리는가 봅니다.

늦게나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을 위한 작업이 일보를 내딛었습니다.

땅속의 진실이 세상에 나와 억울한 영령의 한을 풀 수 있기를,

반목과 굴절의 역사를 극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진실규명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그리하여 민족의 화합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억울하게 희생된 여러분의 넋을 기리며,  
돌탑을 쌓는 마음으로 이 글을 바칩니다.

2007년 7월 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김 원 응

## 추도사

존경하는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57년 전 분단과 냉전이 불러온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산내 희생자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희생된 아픈 상처를 반세기가 넘도록 가슴속으로만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를 들춰내 상처를 덧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하게 밝히고, 억울한 누명과 맺힌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하나하나 매듭지어갈 때, 그 매듭은 미래를 향해 내딛는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 불행한 사건을 가슴깊이 새겨,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원히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대전 산내 희생자 영령들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1일

국회 정무위원장 / 대전 서갑 국회의원 박병석

## 추도사

먼저 지난 50년 전 이곳 산내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해 먼저가신 산내학살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20세기 불행했던 한국사는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내 골령골 학살 희생자의 유족들은 산내학살이 자행되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 수 십년 동안 학살자체에 대한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고통스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당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어야 할 유족들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산내학살은 지난 50년 가까운 시간동안 유족들만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위로해 오다가 지난 1999년 미국의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세상에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한 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2005년 5월 31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짐에 따라 산내학살에 희생당한 많은 분들이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가족 및 관계자 여러분!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7월이면 이곳 산내에서 지난 시절 희생당하신 분들을 위한 위령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전충남지역의 시민단체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 이유로 인해 정작 위령제 사업에 앞장서야 할 여러 공공기관들이 아직은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아직도 이 땅에는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가족 및 산내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위령제를 준비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하루속히 대전산내 민간인에 대한 학살의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했던 우리 역사를 스스로 정리하고 반성하는 것이 이 땅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넘겨줄 수 는 없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특히 올해부터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유골발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위령제를 계기로 모든 진실이 그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비가 내립니다. 50여 년 전 억울하게 죽어가 이들의 눈물, 50년 동안 흘린 그 유가족들의 눈물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산내학살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1일

대전 동구 국회의원 선병렬

# 추도사

한반도 역사의 어두운 무대였던 오늘 우리가 서있는 이 곳 산내 골령골에서 희생된 영령들께 머리 숙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마땅히 한민족이 주체가 되어야 할 우리의 근현대사는 일제에 의해 짓밟혔고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불어 닥친 이데올로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북분단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한민족 스스로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동족상잔의 참혹한 비극 속에서 수없이 많은 희생자들이 가슴 속에 한을 남긴 채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57년의 세월이 무심하게 지났습니다. 유가족들의 가슴에는 피멍만 남긴 깊은 슬픔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슬픔과 통한을 딛고 일어서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아 드려야 할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위령제에서 김종현 유족회 회장께서 “역사의 진실을 밝혀 갈등과 반복의 역사적 긴 장막을 걷게 하고 화해와 통일을 꽃피우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이 바로 진상규명 작업”이라고 하신 말씀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령제에 참석해 주신 유가족과 내외빈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과거의 불행을 딛고 일어서 화해와 평화가 물결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다함께 손을 맞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확신합니다.



57년 전, 산내 골령골에서 희생된 영령들의 역사적 진실이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탄탄한 기반으로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위령제 개최를 위해 노력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리며 김종현 대전산내사건 희생자유족회장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1일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심대평

## 추도사

대전 산내학살 사건이 발생한지 올해로 5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7년 전 억울하게 희생되신 영령들께 머리 숙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넘도록 슬픔과 고통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동안 묻어왔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하게 희생되거나 죽임을 당한 어두운 그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산내 학살 사건은 그 성격은 분명히 드러나지만 정확한 진상은 감춰진 채 그대로입니다.

올해로 8번째의 위령제를 치르게 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역사의 한 편에서 숨죽인 냇들의 고통뿐입니다. 이제는 정확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통해 57년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복잡다난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는 우리 민족에게는 더 없는 기쁨입니다. 이제 민족의 불행이 시작됐던 전쟁과 그 전쟁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냇이 민족의 불행에서 화합과 용서와 평화로, 다시 우리 민족의 얼이 되게 깊은 추도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위령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위령제 준비위원회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신 참가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령들이여, 이제 편히 쉬소서.

2007년 7월 1일

대전 중구 국회의원 권선택

## 추도사

우리는 지금 57년 전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민간인최대학살사건임에도 아직도 확실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먼저 이곳 산내 골령골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신 영령들께 머리 숙여 삼가 명복을 비읍니다. 아울러 오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오랜 세월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계시는 유족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진실의 햇살이 서서히 비취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산내학살 사건의 진상이 언론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세상에 알려졌고, 만시지탄은 있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발굴작업과 함께 진실규명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실이 가려진 채 한낱 과거 속의 일로만 치부되는 사건들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내학살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하는 이유는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들과 유족들의 한을 푸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굴절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그 본질일 것입니다.

이제는 신속하게 유해발굴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골령골 일대 여기저기서 희생자들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각종 개발 및 영농행위 등으로 유해훼손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내학살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작업이 민간인집단희생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첫 발굴이라는 점에서 진상규명과 함께 철저한 발굴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상당부분 밝혀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확인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950년 7월 1일 한국정부의 지시로 대전과 그 인접지역에서 민간인을 집단 살해했다'는 기록이 미군 제25 CIC 분견대의 활동보고서를 통해서도 밝혀졌고,  
국가기록원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주요 기록물 보존실태 조사에서 산내학살 관련 자료가 상당수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기관들이 대전산내학살의 진상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정립한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반드시 진상은 규명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고인들과 오랜 세월 가슴에 묻고 진실규명을 위해 인고의 세월을 보내오신 유족여러분들의 한이 풀어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발굴작업에 참여하신 충남대박물관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더 큰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인들에게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진실이 규명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7. 1

대전 유성구 국회의원 이상민

## 추도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강창일입니다.

또 다시 7월입니다. 이 곳 골령골에 설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져 옵니다.

대전 산내 학살터는 우리 한국사의 참혹한 비극으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무려 7,000여명의 사람들이 한 순간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죽임을 당했던 그날의 비명이 지금도 생생히 들려옵니다.

저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로 비극의 한국사를 바로잡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탰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남지만 60년 가까이 한 많은 세월 동안 미처 말하지 못한 역사의 진실은 이제 밝은 태양 아래 드러났습니다.

이 곳 산내에 설 때면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무정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신 이들을 기억하는 아들, 딸들의 머리에는 이미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한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기억합니다.

오랜 세월, 그 누구도 이유를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신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병어리 가슴앓이 하듯, 속으로만 속으로만 울어야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가슴은 이미 재가 되어 무너졌고, 눈물도 이제는 메말라 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원통하고 애절해 영영 이래로는 살지 못할 것 같은, 아픈 가슴을 부둥켜안고 뉘 나간 아이처럼 살았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슬픔은 한이 되고 울음은 뽕뽕 언 고드름처럼 우리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몹쓸었던 역사에 살아남은 것이 죄라면 죄였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살아있는 이들에게 가신 임들은 결코 말해서는 안될 금기였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해 가슴이 끓어지고 속이 까맣게 타가도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말이 될 수 없었던 한들이, 말이 될 수 없었던 사연들이 오로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한덩이 재로 남아있었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무심한 것만 아니어서 이제 오늘 가신 임들의 발치에나마 엎드려 임들의 명령 앞에 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한이야 어디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못 다한 사연이야 어디 글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명령들 앞에 머리 숙여 뵙니다. 미처 못 다한 이승의 사연일랑 부디 저승에서 마디마디 다 풀어 가시길 두 손 모아 뵙니다.

이미 머리가 하얗게 센 가신 임들의 아들, 딸들이 조촐히 제물 진설하고 임들의 명령을 위로하니, 부디 명령들이시여 원통한 한일랑은 제주 바다에 다 풀어놓고 편히 가시기를 뵙니다.

그날의 슬픔이, 그날의 아픔이, 이제는 다시는 오지 말아야 할 것이기에 오늘 여기 모여 가만히 머리 숙여 명령님들의 명복을 뵙니다.

2007년 7월 1일

제주시 북제주군 갑 국회의원 강창일

## 추도사

한국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도 5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청산되지 못한 어두운 과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 희망대장정을 통해 민생의 현장과 역사의 현장을 구석구석 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전산내학살사건의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사건의 실체와 아픔을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건의 현장에는 지금도 유골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할진대 유가족들은 갈가리 찢겨진 마음으로 피울음을 삼키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이 57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또 하나의 죄악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아온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함을 풀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여곡절 끝에 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반이 지났는데도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과거가 바로잡아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방해하는 역사에 대한 크나큰 죄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온 고통의 세월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입니다. 희생을 강요한 사람이든 희생을 강요당한 사람이든 역사 속에서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과거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일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민족의 상생과 화해의 시작입니다. 또한 살아남은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유가족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의 위령제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촉구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2007년 7월 1일

전 행정자치부 장관 김 두 관



## 추도사

세상 천지에 이런 원통 억울한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었던 말입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깨지고 불벼락 쳐대는 세상의 종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무참히 밟길질 몽둥이질 당하고 물고문 전기고문으로 살점 튀고 짓이겨진 후 이곳 산내 골짜기로 실려와 총살당했습니다. 그날 손은 묶여지고 눈이 가려져 저 하늘과 구름 나무들은 볼 수 없었지만, 분명 유가족 여러분의 모습을 환히 보며 마지막 숨 걸을 때까지 여러분의 이름 부르고 안녕을 빌었을 것입니다.

학살을 감행한자들 대부분은 왜놈 군경의 앞잡이 노릇하며 민족의 고혈을 빨아 배불리던 친일 주구들이었습니다. 민족 반역의 행각이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던 그들이 미군정과 이승만에 의해 일제시대나 다름없는 권력을 휘어잡게 되자 자신들의 더러운 과거를 알고 있는 민족의식 있는 분들을 제거하기에 혈안 되어 있었습니다. “빨갱이” 이 한마디로 천인공노할 백만에 가까운 학살을 아주 쉽게 자행한 것입니다.

긴긴 세월동안 세상의 모든 불리함을 한 몸에 안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거친 풍파를 견디며 살아오신 유가족님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모진 인생살이였습니까? 세상을 얼마나 원망하셨겠습니까?

여기 묻혀계신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버님으로 인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의 역경을 살아오셨습시다만 이제 떳떳하고 당당히 가슴을 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과 할아버지들은 분명 그 시대 민족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랑스러운 분들이었습니다.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대쪽같이 올곧은 분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늦었지만, 정말 너무 늦었지만, 국가 공 기관에서 유해 발굴 작업에 나선 것은 참으로 의의 있는 일입니다. 여러 어려운 조건하에도 이를 관철해내신 대통령님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여러분의 신념어린 열정과 결단에 깊은 경의와 무한한 사의를 올립니다.

“전능하신 천지신명이시여! 당신의 자비로 지금도 여기 산내 골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을 원혼들을 위로하여주시고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살인귀들의 서슬 퍼런 폭력적 협박에 겁먹어 눈치 보느라 맘 놓고 위령제도 지낼 수 없었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지난날을 용서해 주소서! 불의하고 부정당함을 알면서도 고개 돌려 모르는 척 무관심하게 살아 온 우리들의 나약함과 비굴함을 책하여 주소서!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만들어놓은 냉전의 덫에 걸려, 이런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학살의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아직도 “빨갱이 타령”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반민족 반통일의 집단이기주의에 함몰되어있는 극우 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큰 깨달음을 얻게 해주소서! 이 어리석은 자들의 가슴속에 인간에 대한 애정의 아름다운 심성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의의 마음이 깃들게 해 주소서!

그리고 천지신명이시여! 학살을 감행했던 분들과 속수무책 무참히 당하신 분들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조국과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쁘게 만나 참회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맞잡게 해주소서!

왜? 어떻게?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으며 어디에 묻혀 계시는지? 그 자초지종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짐으로서 유가족들이 천주의 한을 풀어 다리를 뻗고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후 우리 유가족 위에 항상 마음의 평화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빌면서 추도사에 가름합니다.

2007년 7월 1일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표명렬

## 추도사

### 8차 위령제를 지내는 다짐

산내 골령골 영령께 다시 고개 숙여 위령제를 지냅니다.

올해가 여덟 번째 재를 올리는 정해년입니다.

1950년7월2일 죽음을 예견하며 공포에 질린 채로 짐승처럼 손과 발이 묶여

이곳 산내 골령골에 끌려오셔서 몸서리치는 학살을 지켜보며

처참하게 목숨을 빼앗긴 영령들이시여!

술 한 잔 무릅 꿇고 두 손으로 올리오니

쓰지만 저희의 정성으로 받아 주십시오.

왜 죽임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법도 절차도 없이 도륙당하신 영령들이시여

이곳 골령골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시는 오늘까지도

원한 맺힌 한은 차치하고 누명도 못 벗기고 진상도 규명 못한 채로

또다시 재를 올리는 이 순간 정말 괴롭습니다.

57년이 지나고 나서야 정부 진실화해위가 유해발굴을 시작합니다.

고맙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믿어야 된다고 두 번 세 번 마음에 다짐도 해봅니다.

누가 죽였는지 압니다.

누구의 지시로 믿었던 군과 경찰에 학살당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찾아 입증해야 한다가에

57년이 된 2007년 풍파에 호트러지고 부서져간 유골을 찾고 모으는 일을 시작합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제주43특별법등 지역에 한정된 개별법들을 통합하여 통합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규명하자고 소리쳤지만

정부는 지난4년 간 외면해오다

마지못해 과거사정리법이란 이름으로 임기 말에 유해발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와 동구청은 내일 아니라며 관심도 없습니다.

지지난해에 중앙정부에서 학살지 보전하라고 준 3억원의 특별교부금도 동구청은 반납하였습니다. 대전시는 정부에서 할일이라며 추모제에도 무관심합니다.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 진상규명에 앞장서온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는

산내골령골 학살진상규명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진실화해위의 유해발굴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협력으로

산내골령골을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다짐으로 8차 위령제를 지내  
고자 합니다.

2007년 7월 1일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남측본부 집행위원장 안은찬

## 대전산내학살사건 경과보고

### <1950년>

- 6월 27일 / 이승만 대통령 및 정부 대전으로 피난
- 7월 1일 / 이대통령 부산 피난  
대전형무소 수감자 탈옥시도  
미국 24사단 대전도착
- 7월 2~10일 / 대전형무소 수감 좌익인사 및 군 예치수 처형된 것으로 추정.
- 7월 8일 /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대전에서)
- 7월 11~14일 / 보도연맹자 등 좌익계 인사 골령골서 계속 처형(인원 모름)된 것으로 추정.
- 7월 13일 / 작전지휘권 미국으로 이양
- 7월 14일 / 대전형무소 폐쇄, 형무소 특경대원 철수.
- 7월 20일 / 북한군 대전장악
- 9월 28일 전후/ 유엔군 서울 수복, 대전 형무소 우익 1천3백여명 집단처형.

### <1992년>

- 2월 / 월간 '말' 통해 최초보도

### <1995년>

- 4월 /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내 자체 진상조사 착수

### <1999년>

- 10월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내 '산내학살 진상조사반' 구성, 자체 조사 착수
- 12월 / 제주 이도영 박사 통해 미국에서 해제된 비밀문서 발견  
대전형무소 1800명 집단처형 보고서 및 학살 현장 사진 발견

### <2000년>

- 1월 / 한국일보 후속보도 후 전국 여론화
- 12월 / 산내학살진상조사단 1차 회의  
진상조사반 현장증언 활동
- 2월 / 진상조사반 증언채록 내용 '월간 말' 2차 후속보도  
제주, 여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3단체 공동 피해 신고센터 개설  
대전 30여건 피해사례 접수

제주에서 4.3관련자 300명 50년 당시 대전형무소 복역 자료 발견  
 여수에서 여순사건 관련자 16명 50년 당시 대전형무소 복역 증언통해 확인  
 산내학살 현장부근 희생자 유골 다량 매장돼 있음을 확인

3월 / 대전전교도소, 도경찰청, 청와대, 국방부, 경찰청, 대전시 등 행정정보공개 신청

3월 3일 / 산내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회의(대전)  
 4일 /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 질의에 대한 대전광역시 회신  
 6일 /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 질의에 대한 대전교도소 회신  
 12일 / 산내학살진상조사단 2차회의

4월 10일 /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 질의에 대한 법무부 회신  
 19일 / 유가족모임 추진을 위한 준비모임  
 25일 / 대전형무소 학살사건 질의에 대한 육군 회신  
 27일 / 진상조사단 준비모임

5월 2일 / 대전형무소 산내학살진상규명위원회 결성회의  
 16일 / 산내학살 대책모임 집행위원회  
 17일 / 2차 유족모임  
 산내 현장방문, 4.3유가족간담회 개최  
 19일 / 국제인권학술심포지움참석  
 26일 / 전국유가족모임 결성준비회의

6월 1일 / 대전산내 학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 및 유족모임  
 9일 / 한국전쟁 양민학살 전국 유족 모임  
 21일 / 전국 양민학살 관련 심포지움 참석(서울)  
 24일 / 전국 양민학살 대책위원회 발족식  
 28일 / 대전산내 유가족 캠프준비모임

7월 8일 / 1차 산내학살진상규명위원회 위령제(대전골령골, 300명 참석)  
 28일 / 대전형무소 산내학살 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회

11월 25일 / 민간인학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12월 8일 /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유족모임

#### <2001년>

1월 8일 /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유족모임  
 2월 8일 /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유족모임  
 3월 8일 / 산내학살 현장 안내 입간판 설치  
 3월 10일 / 한국전쟁전후 국제전범 조사단 방한 및 산내학살 현장방문  
 4월 6일 / 이도형 박사 초청 강연회 개최

5월 12일 / 코리아전법재판 성사를 위한 산내학살지 순례  
 5월 23일 / 민간인학살 특별법 국회공청회 참석(국회)  
 6월 8일 /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유족회 모임  
 6월 15일 / 제2차 위령제 준비모임  
 6월 29일 / 산내학살진상규명위원회 위령제 준비모임  
 7월 5일 /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준비모임  
 7월 8일 / 2차 산내학살진상규명위원회 위령제 봉행  
 9월 6일 / 민간인 학살 전국유족회 건설모임(서울)  
 9월 12일 / 대전산내학살 관련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협조요청문 발송  
 9월 21일 / 민간인 학살 전국유족회 건설모임(대전)  
     대전산내학살 관련 통합특별법 제정 국회의원(김원웅 외 47명 국회의원 발의)  
 10월 8일 /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유족회 모임  
 10월 22일 / 전국유족회 재창립 및 유족대표자회의(서울)  
 11월 5일 / 전국유족회 재창립 및 전국위령제 참석  
 11월 15일 / 대전산내학살 동구청 불법 건축물 관련 긴급대책모임  
 11월 20일 / 대전산내학살 제주유족 대전시 정무부시장 면담  
     건축현장 유골 무더기 발견, 수습  
     유족회 및 지역시민사회단체 동구청 항의방문  
     대전KBS 산내학살지 현장 취재 협조  
 11월 23일 / 동구청 불법 건축물 허가에 대한 긴급대책모임 개최  
     동구청장 건축 공사 중지 재요청  
     제주도 지사 건축공사 중지 및 현장 보존 대전시 동구청에 건의서한 전달  
     대전산내학살 현장 건축공사 대책마련 변호사 자문  
 11월 24일 / 대전산내학살지 현장 훼손 관련 동구청장 면담  
 11월 28일 / 대전산내학살지 불법 건축물 관련 대책회의  
 12월 8일 /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유족회 모임

#### <2002년>

1월 3일 / 산내학살 건축허가 규탄 동구청앞 1인 시위  
 6일 / 제주유족회 학살현장 건축공사 중단 청원  
 8일 / 학살지 현장 교회신축에 대한 탄원서 제출  
     정기총회 개최하여 조직명칭을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로 변경  
 9일 / 산내학살지 현장 및 구대전형무소 방문  
 22일 / 대전산내학살지 건축관련 대전 KBS충청패트를 방송

31일 / 영국 BBC방송에 즈음한 논평발표  
 2월 5일 / 전국기독교학생회 연합 산내학살 현장방문  
     6일 / 전국기독교학생회 연합회 산내학살지 훼손관련 동구청 항의방문  
 3월 8일 /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유족모임  
 4월 8일 /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유족모임  
 5월 8일 /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유족모임  
 6월 8일 /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유족모임  
     26일 / 3차 위령제 개최를 위한 준비모임  
 7월 8일 / 제3차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봉행  
 8월 29일 / 민간인학살 사회단체협의회 발족(서울)  
 9월 8일 /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유족모임  
 10월 4일 / 임시총회개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로 명칭변경  
 11월 7일 /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여의도 대회 참석(서울)  
 11월 8일 /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유족모임  
 12월 9일 /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유족 송년의 밤 개최

#### <2003년>

1월 8일 /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유족모임  
     27일 / '민간인학살'진상규명 인권위 진정서 제출 및 무기한 농성돌입  
     28일 / 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통령 인수위 제안  
 2월 7일 / 민간인진상규명 시민단체협의회 워크샵(대전)  
     8일 /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정기총회 개최  
     28일 / 범국민위 피학살 유족, 전쟁.파병 반대 성명  
 3월 8일 / 대전산내학살 대책회의 유족모임  
     11일 / 한국전쟁전후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인권위 농성장 방문  
     18일 / 한국전쟁전후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25일 / 한국전쟁전후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앞 집회 참석  
     28일 / 학살지 현장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요청 국회청원서 접수  
 4월 8일 /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유족모임  
     21일 / 대전고법,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소송 기각결정  
 5월 9일 /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유족모임  
     14일 / 집단학살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  
     23일 / 집단학살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총력투쟁대회 개최(서울)  
 6월 6일 /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법 제정촉구 성명 발표



13일 / 산내학살지 현장보존관련 동구청장 면담  
17일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  
7월 8일 / 4차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봉행  
8월 8일 /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평가모임

<2004년>

2월 5일 / 행자부 3억원 지원금 동구청 거부에 대한 규탄논평  
9일 / 대전산내학살 관련 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보류에 대한 규탄논평  
20일 / 한나라당 6.25통합 특별법 제정촉구 논평  
3월 2일 / 대전산내학살 관련 통합특별법 부결에 즈음한 한나라당 규탄 성명  
31일 / 학살현장지 훼손관련 제주지역 유족대표단 동구청 항의방문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유족모임  
6월 8일 / '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개최(서울)  
6월 12일 / 대전산내학살대책회의 유족모임  
7월 1일 / 다섯 번째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준비모임  
4일 / 다섯 번째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봉행  
9월 20일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범국민위원회 전국 유가족 협의회 모임  
9월 23일 /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준비모임참가  
11월 9일 / 올바른 과거청산 범국민 위원회 창립대회 참석(여의도 국회앞)  
12월 17일 / 국회 앞 천막농성 및 범국민위원회 참석 농성시작(서울 여의도)

<2005년>

2월 3일 / 한나라당 연찬회의장 앞 시위(충북 청풍 리조트)  
2월 16일 / 국회 및 한나라당 당사 앞 특별법 제정 촉구 유족항의시위(여의도)  
2월 28일 / 특별법 제정 촉구 열린우리당사 앞 항의시위  
4월 5일 / 특별법 제정 촉구 열린우리당사 앞 항의시위  
5월 16일 / 전국 유가족 협의회 참석(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5월 31일 / 범국민위원회 정기총회 참석(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7월 1일 / 제6차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준비모임  
7월 8일 / 제6차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봉행  
10월 7일 / 전국 유가족 협의회 회의 참석(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0월 19일 / 여순사건 위령제 전야제 참석(김종현, 문양자 참석)  
10월 20일 / 여순사건 위령제 참석  
11월 23일 / 전국유가족 협의회 대의원 회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1월 24일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활동 보고서 및 출판기념회 참석  
 12월 5일 / 전국 유족회 고문 별세로 문상방문  
 12월 13일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희생자 전국합동 위령제 봉행  
 12월 23일 / 대전산내학살희생자 유족회 모임  
     전국유족회 과거사 정리위원회 방문(정해영 유족)  
 12월 24일 / 경북문경점촌 석달동 집단학살지 86위 제56주기 합동위령제 참석  
 12월 27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실 규명 신고 접수시작

#### <2006년>

1월 12일 / 범민련 전국유족협의회 신년회 참석(서울, 김종현, 이계성, 정해영, 문양자 등)  
 1월 14일 / 대전산내학살 유족회 월례회의  
 2월 10일 / 범민련 전국 유족협의회 대의원대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월 11일 / 대전산내학살 유족회의  
 2월 28일 / 김창룡 국립묘지추방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  
 3월 1일 / 대전산내학살 유족모임 준비모임(김종현, 문양자, 박미라 외)  
 3월 3일 / 전국유족협의회(서울 프란체스코회관)  
 3월 11일 / 대전산내학살 유족모임  
 3월 14일 / 대전산내학살 유족모임 전화개통  
 3월 23일 / 제주KBS 산내 학살 현장 취재 협조(김종현, 심규상, 신순란, 박미란 외)  
 4월 1일 / 순천 위령탑 준공식 참석(김종현 회장)  
 4월 2일 / 제주4.3 유족 위령제 봉행 참석(김종현, 전숙자 외)  
 4월 12일 / 고 장석정 선생 추도식 참석  
 4월 15일 / 공주 형무소 학살지 답사(김종현, 곽정근, 이계성, 심규상 외)  
     대전산내학살 유족모임  
 4월 18일 / 거창 위령제 및 추모식 참석(김종현, 전숙자, 이영구, 강철민 외)  
 4월 21일 /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면담(김종현, 이계성 외)  
 4월 25일 / 대전산내학살지 과거사 위원회 법무팀장 외 학살지 현장 안내(김종현)  
 4월 29일 / 강화 위령제 봉행 참석(이계성, 정해영 외)  
 5월 1일 / 범민련 전국 유족협의회 법인 추진단모임 및 제65차 범민련 운영위 참석  
 5월 13일 / 대전산내학살 유족모임  
 5월 16일 / 전국유족협의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6월 8일 / 제56주기 7차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준비모임  
 7월 8일 / 제56주기 7차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봉행  
 7월 9일 / 민족문제연구소 전국위원 산내 현장방문

7월 11일 / 이리역 미군 폭격 희생자위령제 참석(익산역, 김종현, 전숙자)  
 7월 18일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면담(서울)  
 7월 23일 / 생명평화순례단 면담  
 7월 25일 / 시행령 문제 세미나 참석(국가인권위원회)  
     전국유족협의회 운영위원회 참석(범민련 사무실)  
 8월 6일 / 공주 왕촌학살 제1차 위령제 봉행(김종현, 이계성 외)  
 8월 14일 / 전국유족협의회 단합대회 및 세미나(백운산, 김종현, 정해열)  
 8월 30일 / 과거사위원회 상임위원(김갑배, 김동춘), 대전시장 면담 및 기자회견(김종현 외)  
 9월 7일 / 범민련 6주년 축하모임 참석(이계성, 정해열)  
 9월 11일 / 과거사위원회 농성 참석(~21일까지 진행, 김종현, 이계성, 정해열 외)  
 10월 3일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보도연맹사건 위령제 참석(김종현)  
 10월 9일 / 대둔산 영령 위령제 참석(김종현)  
 10월 18일 /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제(~19일까지 진행, 고흥, 김종현, 문양자 외)  
 11월 18일 / 유족회 정기 월례모임  
 11월 23일 / 전국유족협의회 협력특별위원회 참석(이계성, 오병한, 정해열)  
 11월 24일 / 불교인권위원회 창립 17주년 기념행사 및 홍근수 목사 출판기념회 참석(김종현 외)  
 12월 4일 / 전국합동위령제 봉행(서울 필동 한옥마을, 김종현, 이계성, 문양자 외)  
 12월 6일 / 전남 함평 위령제 봉행(김종현)  
 12월 7일 / 대전형무소사건 직권조사 개시 설명회(과거사위원회, 대전시청 세미나실)  
     유족회 송년회 및 결의대회(문양자 총무 식당)  
 12월 13일 / 국회예결위원회(이계성)  
 12월 23일 / 한국제노사이드 연구회 2006년도 동계워크숍 참석(김종현, 문양자, 전숙자)

#### <2007>

1월 4일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인수 ‘대전민간인희생자대책회의’  
 1월 11일 /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정기총회  
 1월 16일 / 2007년 범국민위원회 신년회(정동, 이계성, 문양자, 정해열)  
 1월 20일 / 순천유족회 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김종현, 문양자, 전숙자, 박성관)  
 2월 8일 / 대전민간인희생자대책회의 총회(참여광장)  
     평화콘서트 참석(청주 예술의 전당, 김종현, 문양자, 전숙자, 신순란 외)  
 2월 28일 / 과거사위원회 2학살지 유골 발굴 지정, 확정  
     전국유족협의회 특위 회의 참석(김종현, 이계성, 정해열)  
 3월 2일 / 전국유족협의회 간부모임(대전역, 김종현)  
 3월 8일 / 전국유족협의회 정기총회(범국민위원회, 김종현, 이계성, 문양자 외)

3월 9일 / 과거사위원회 유골발굴팀 2학살지 현장조사 및 서류접수(동구청)  
 3월 17일 / 유족회 정기 월례모임  
 3월 23일 / 오마이뉴스 심규상기자 인터뷰  
 3월 26일 / 전국유족협의회 상임대표회의(순천)  
 3월 29일 / 청주 청원 보도연맹 위령제 봉행(김종현, 박성관, 문양자 외)  
 3월 31일 / 평화재향군인회 산내 학살지 탐방  
 4월 2일 / 제주43사건 위령제 봉행(~3일까지, 평화공원, 김종현, 박성관, 여태구, 전숙자)  
 4월 7일 / 유족회 정기 월례모임  
 5월 7일 / 유족회 정기월례회(참여광장)  
 5월 8일 / 학살지 답사(과거사위원회, 심규상, 김종현)  
 5월 10일 /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회(김종현)  
 5월 19일 / '청풍'인터뷰(김종현)  
 5월 25일 / 대전KBS 한국전쟁특집 인터뷰(김종현, 문양자)  
 6월 3일 / 통일기원 기차여행(도라산역, 김종현 외 10인)  
 6월 7일 / 유족회 정기 월례모임  
 6월 22일 / 대전산내학살관련 대전시 규탄 논평 발표  
 6월 27일 / 전남 구례 봉성산 유골발굴 개토제 참석(김종현 외)  
 7월 1일 / 대전산내학살지 유골 발굴 개토제  
 제57주기 8차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봉행

## 산내 골령골의 시간은 아직도 1950년, 산내사건 공론화 그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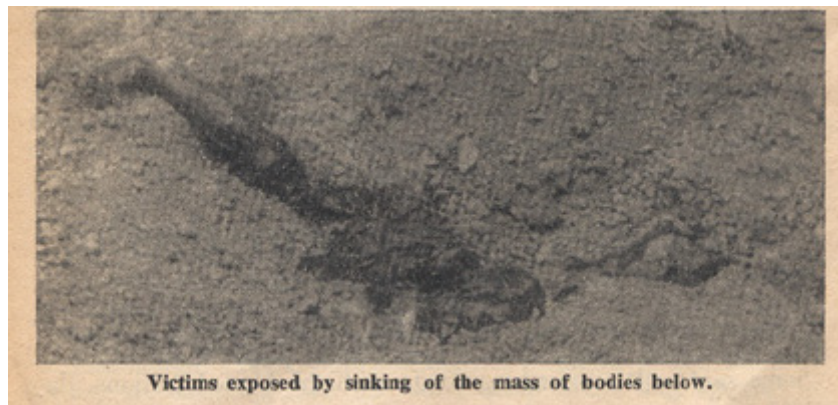
▲ 2000년 7월 산내 현장에서 열린 첫 위령제. 수 백 여명의 유가족들이 수 십 년 만에 처음 모여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 2001년 10월. 하지만 희생자 암매장지 위에 관할구청의 무관심과 건축허가로 건물이 들어섰다. 이 건물은 뒤늦게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 2007년 현재. 농사를 지을 때마다 희생자 유골이 곳곳에서 드러나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 1950년, 총살직후 대충 묻어 놓은 흙더미 사이로 한 희생자의 다리가 빠져 나왔다. 유골이 나뉘는 지금을 떠올리게 한다.



▲ 산내 골령골에서 밭갈이 때 마다 드러나는 사람의 뼈





▲ 한국전쟁당시 대전형무소 옛 자리에 조성된 반공애국지사 위령비. 이 사건은 대전산내 사건에 대한 인민군에 의한 보복살인으로 자행됐다.



▲ 한 산내 유가족의 눈물

##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

### **한 외국인 중군기자가 본 산내학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서히 땅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살점과 뼈들을 볼 수 있었다. 그 냄새는 목구멍까지 스며 들어와 그 후 며칠 동안이나 그 냄새를 느껴야 했다. 커다란 죽음의 구덩이를 따라 창백한 손, 발, 무릎, 팔꿈치 그리고 일그러진 얼굴, 총알에 맞아 깨진 머리들이 땅 위로 뼈죽이 드러나 있었다..."

"인근 지역 농부들이 강제로 끌려와 구덩이를 팠는데 그들로부터 나는 진실을 알 수 있었다"

"6개의 구덩이는 모두 6피트(2m)의 깊이다. 세로는 6피트(2m)에서 12피트(4m)에 이르렀다. 구덩이의 길이는 가장 긴 것이 200야드(200m)였고 두 개가 100야드(약 100m), 가장 짧은 것이 30야드(약 30m)였다"

"7월 4일, 5일, 6일 형무소와 대전 부근의 집합소에 모여 있던 정치범들이 트럭에 실려 이 계곡으로 끌려왔다. 그들은 밧줄에 묶인 채 두들겨 맞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트럭에는 사람들이 정어리처럼 위로 뺨곡이 쌓여 있었다"

"그렇게 한 트럭씩 계곡으로 끌려와 총에 맞아 구덩이로 떨어졌다. 그러면 인부(농부)들이 그 위에 흙을 덮었다."

"그리고 10일 동안 다른 지역의 정치범들이 비어 있는 감옥으로 집중적으로 옮겨 왔고 인부들은 또 땅을 파러 갔다"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나는 수많은 '정치범들'이 그 근처에서 학살당했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다. 어떤 이는 3천명, 어떤 이는 4천 명이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사실은 소문보다



더욱 나뻐다... 길 옆에는 7천 여 명이 넘는 남녀 시체가 얇은 흙으로 대충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7월 16일 인민군이 미군의 금강전선을 돌파하자 7월 17일 새벽, 남아 있는 정치범들에 대한 학살이 (또 다시) 시작됐다. 이날 무수한 여자들을 포함해 적어도 각각 100명씩 37대 트럭분, 3700여명이 죽었다."

"예전에 벨젠(Belsen)이나 부헨발트(Buchenwald)의 나치 살인수용소에 관한 글을 읽으며 그곳이 어떠했을까를 상상해 본적이 있다. 그때의 내 상상이 어처구니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는다."

"땅에 버려진 빈 담배 갑들과 놓여 있는 수천 개의 탄약통들은 모두 미제였다. 나는 한 옹크의 M-1과 카빈 탄약통을 주웠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다."

위 글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현장의 처참한 모습을 목격한 앨런 위닝턴 기자의 증언록,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I saw the truth in Korea)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위닝턴 기자는 영국 일간신문 <데일리 워커>의 편집자이자 특파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상황과 그 영향을 보도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고 대전 산내 학살에 대한 기사를 타전했다.

## <기록과 증언으로 본 대전 산내사건 주요 쟁점>

정리 / 심규상(오마이뉴스 기자)

<p>학살명령, 누가 내렸나</p>	<p>[미육군 G - 2보고서, 비밀문서(2급)-99년 12월 해제] “처형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상부(최고위층)로부터 내려진 것”</p> <p>[미 군사고문단 롤링스 에머리치 중령 / '1950년 한국전쟁 초기의 역사'] “한국정부는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일 부산과 대구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좌익혐의자 8천여 명을 집단 처형키로 결정. 현장 책임자 국군 3사단 23연대장 김종원” 미군사고문단 “전황이 악화되면 형무소 문을 열고 기관총으로 모두 사살해도 좋다”(조건부 허락)</p> <p>[민족의 증언 - 1983 중앙일보사 간] “충남도지사 관사에서 신성모 국방장관, 백성욱 내무부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전형무소 적색수감자 2천여명,에 대한 처리방안이 논의 추정”</p> <p>[미군 제25 CIC 분견대의 1950년 11월 2일자 활동보고서] “1950년 7월 1일 한국 정부의 지시로 경찰이 대전과 그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을 집단 살해했다. 과거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p> <p>[대전형무소 특경대부대장 이준영 씨] “ 1950년 7월 1일 상부로부터 총살명령 있었다”</p> <p>[영국일간지 데일리 워커의 앨런 위닝턴 기자] "이 사건은 미군의 지시에 따라 일어난 학살 중 하나"(‘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 I saw the truth in Korea)</p>	<p>미국, 이승만대통령 장석윤내무부 치안국장 김종원23연대장</p> <p>현장책임자 / 심용현 중위</p> <p>현장학살참여자 / 충남도경찰국 사찰주임</p>
-------------------------	--	---

	<p>[영국 업저버의 필립 딘 기자, 1953년 빨간 증언록] “미군장교도 지켜보고 있었다”(‘나는 한국에서 포로였다’ I was captive in Korea)</p> <p>[김종필 자민련 전 명예총재] "이 사건의 내막은 당시 김창룡 특무대장이 알고 있었을 것"</p>	
<p>학살기간과 학살인원</p>	<p>[대전형무소 특경대부대장 이준영 씨 등 당시 교도관] 7백여명, 1950년 7월 8-10일 오전까지 사흘(정확히 이틀 반나절)" “ 50년 7월 1일 상부로부터 총살명령 있었다”</p> <p>[미육군 G - 2보고서, 비밀문서(2급)-99년 12월 해제] 1800명, “대전형무소 수감 죄수들을 3일동안 진행했으며 7월 첫째주에 일어났다”</p> <p>[미군 제25 CIC 분견대의 1950년 11월 2일자 활동보고서] “충남 서산에서 보도연맹원 400명이 트럭 6대에 실려 대전으로 가는 모습이 미군 군무원이 목격”</p> <p>[총살 집행 가담자(당시 충남도경찰국 사찰주임) 변홍명(가명) 씨] 수 천여명. “10여일간에 걸쳐 진행됐다. 처음 3일동안은 나무에 묶어놓고 죄수들을 처형했고, 그 이후에는 죄수들을 앉히거나 눕혀놓고 처형했으며, 죄수처형이 끝난 그 뒤 3일 동안은 보도 연맹원과 불순분자로 끌려온 5백여명을 계속 처형했다.”</p> <p>[다수 목격 주민 증인들] "적어도 열흘 쯤 죄수를 싣고 들어가는 도라꾸(트럭)행렬이 계속됐다"</p> <p>[영국일간지 데일리 워커의 앨런 위닝턴 기자] 7000명,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이 7월4~6일과 7월17일 두차례 실시됐으며 특히 2차 학살때는 여성을 포함한 재소자 이외의</p>	<p>학살기간 3일에서 최고 보름정도까지</p> <p>학살인원 700명에서 최고 7000명까지</p>

<p>민간인 학살도 이뤄졌다. 그리고 10일 동안 다른 지역의 정치범들이 비어 있는 감옥으로 집중적으로 옮겨 왔고 인부들은 또 땅을 파러 갔다"</p> <p>"7월 16일 인민군이 미군의 금강전선을 돌파하자 7월 17일 새벽, 남아 있는 정치범들에 대한 학살이 (또 다시) 시작됐다. 이날 무수한 여자들을 포함해 적어도 각각 100명씩 37대 트럭분, 3700여명이 죽었다."</p> <p><b>[목격자 증언 / 정준섭씨]</b> "50년 7월 초 청주교도소 수감자들이 밧줄에 묶여 수백명이 대전으로 끌려 걸어가는 장면을 똑똑히 봤다"</p> <p><b>[목격자 증언 / 안병남씨]</b> "6.25당시 영등포형무소에 수감중 친구들과 풀려나 귀향길에 올랐다가 대전형무소에 다시 수감됐고 이때 친구들이 산내로 끌려가 처형됐다"</p> <p><b>[북한 해방일보 - 인민해방보]</b> 북한 종군기자 보도내용으로 각각 3천명, 7천명 보도</p>	<p><b>진상조사단</b> 암매장지 규모, 각종기록과 증언 종합 통해 7000명 학살에 무게 중심.</p>
---	--

## 대전산내학살사건 ‘학살’ 진실 밝힐 10가지 쟁점

### 쟁점1. 누가 학살명령을 내렸나?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비밀문서(2급)로 분류돼오다 99년 12월 16일 비밀 해제된 문서에는 '처형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상부(최고위층)로부터 내려진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외 현재까지 확보된 증언은 당시 군 헌병대의 요구와 이우익 법무부장관의 동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 포항 앞바다 함상에서 2백 여 명의 재소자를 학살, 수장한 유사사건이 당시 국방장관과 내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확보돼 있다.

다른 한편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는 지난 3월 이도영 박사와의 얘기도중 "이 사건의 내막은 당시 김창룡 특무대장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혀 당시 육군 정보국에서 군복무를 했던 제이피의 이 사건에 대한 인지정도와 범위에 여전히 관심의 쏠려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당시 충남도지사 관사에서 신성모 국방장관, 백성욱 내무부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전형무소 적색수감자 2천 여 명에 대한 처리방안이 논의됐음을 추정케 하는 기록(민족의 증언, 1983 중앙일보사 간)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 등이 학살 명령을 내렸을 것이라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통령인지 국무회의인지를 밝혀낼 공식 문서나 증언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국방부 등 정부 측의 보유문서와 미국 측 보유문서에 대한 철저한 확인 조사 작업이 요구된다.

### 쟁점 2. 미국은 사주했나? 방조.목인했나?

총살 집행장에 '미군이 있었다는 증언은 여러 곳에서 나온다. 당시 총살을 집행한 경찰이 "총살 집행장에 미군이 포진해 있었다"고 했고 '미군 장교 등이 쫓차 두 대에 나눠 타고 현장에 나타나 처형장면을 참관했다'는 당시 [런던 데일리 워커]지 보도기사도 확인됐다.

사진자료에는 미군장교가 지켜보고 있는 장면도 잡혔다. 실질적인 작전권을 행사한 미

군이 정치범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모습에서 학살된 뒤까지 사진을 찍은 것이다.

또 하나 학살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7월 1일, 이미 미국 24사단이 대전에 도착해 있었다.

그런데도 한국군의 처형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조, 묵인 범위를 벗기 어려우며 당연히 그 이상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학살 직후 현장을 취재한 영국 앨런위닝턴 기자는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를 통해 '미국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위닝턴 기자는 '미군 장교들이 한국군 장교들과 매일 지프차를 타고 와서 학살을 감독했다'고 기록했다. 또 "땅에 버려진 빈 담배갑들과 놓여 있던 수 천 개의 탄약통들도 모두 미제였다"고 덧붙였다.

흥미로운 것은 위닝턴 기자의 경우 7월 17일 대규모 2차 학살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경우 7월 13일 작전지휘권이 미국으로 이양됐음을 감안할 때 '미국지시설'은 더욱 힘을 얻는다.

### 쟁점 3. 학살기간 몇 일인가?

이 문제는 쟁점이 되는 희생자 수를 규명해 내는 열쇠이기도 하다. 현재 증언자들은 3일에서 보름까지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각 증언자에 따라 희생자의 수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형무소 특경대부대장 이준영 씨(80) 등 당시 교도관들은 50년 7월 8-10일 오전까지 사흘(정확히 이틀 반나절)이라고 증언했고 해제된 미 비밀문서의 기록은 "3일 동안 진행됐으며 7월 첫째 주에 일어났다"고 돼 있다.

미국 한국전쟁 사학자인 브루스커밍스 교수는 [런던 데일리 워커]지 기사를 인용, 50년7월2일-6일이라고 적고 있다.(한국전쟁의 기원, 프린스턴대학 출판부,1990년)

학살기간이 열흘이라는 증언은 우선 총살 집행 책임자(당시 도경찰국 사찰주임)인 변홍명(가명) 씨에 의한 것으로 '처음 3일 동안은 나무에 묶어놓고 죄수들을 처형했고, 그 이후에는 죄수들을 앉히거나 눕혀놓고 처형했으며, 죄수처형이 끝난 그 뒤 3일 동안은 보도연맹원과 불순분자로 끌려온 5백 여 명을 계속 처형했다'며 "10여 일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변씨의 주장은 당시 총살집행 책임자인데다 생생한 현장 증언이어서 신빙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산내에서 "적어도 열흘 쯤 죄수를 싣고 들어가는 도라꾸(트럭)행렬이 계속됐다"는 다수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변씨의 증언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학살 직후 현장을 취재한 영국 앨런 위닝턴 기자는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를 통해 여기에 7월 4일,5일,6일 형무소와 대전 부근의 집합소에 모여 있던 정치범들이 처형됐다는 증언이 추가됐다. 위닝턴 기자는 이에 대해 "무수한 여자들을 포함해 적어도 각각 100명씩 37대 트럭분 3700여명이 죽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 쟁점 4. 몇 명이 죽었나?

현재 증언자들은 희생자 수에 대해 600여명에서 7000여명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나와 있다. 미국립문서보관소의 기록에는 1천800여명으로 돼 있다. 물론 희생자 수에 따라 학살된 기간(일수)도 달라진다.

600여명이라는 주장은 당시 정치범을 헌병대에게 내어준 대전형무소 특경대부대장 이준영 씨 등 근무 교도관들의 증언으로 "당시 정치범을 수용하던 감방 수의 규모로 그 숫자를 산출"한 것이다. (처형 일수 3일,7월8-10일)

1천800여명은 해제된 미 비밀문서의 기록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대전에서의 1천800여명의 정치범 처형은.. "으로 명시돼 있다. (처형 일수 3일, 7월 첫째 주)

3천 여 명이라는 주장은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무덤규모 등에 따른 것인데(처형일수 10일) 객관성과 신빙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7천명이라는 주장은 학살 직후 현장을 취재한 영국 앨런 위닝턴 기자에 의해 제기됐다. 위닝턴 기자는 7월 4일,5일,6일만에 걸쳐 수 천 여명이 처형된데 이어 7월 17일 2차 학살을 통해 무수한 여자들을 포함해 적어도 각각 100명씩 37대 트럭분 3700여명이 죽었다"고 밝히고 있다.

학살기간은 증언자에 따라 50년 7월 2일부터 군.경이 후퇴하기 시작한 7월 중순경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각기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학살이 7월 2일부터 중순경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당시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증언자 안아무개 씨(78,경기도 거주)는 7월 2일 동

료들이 희생된 것 같다고 했고 대전 대덕구 갈현리 주민은 당시 마을 희생자들이 7월 5일 처형됐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확인결과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내고 있는 제사일도 7월1일, 7월 5일 등 다양한 일자가 나왔다.

희생자가 7천 여 명 이상에 이른다는 결정적인 증언은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던 정치범 외에 타 지역에서 출소됐다 풀려난 정치범들이 또 다시 붙잡혀 함께 처형됐다는 것과 정치범 외에 보도연맹원, 좌익불순분자 등 민간인 학살에 관한 것이다. 이밖에 그동안 알려진 1, 2학살지 외에 8학살지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 같은 증언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 쟁점 5. 민간인 학살 있었나, 없었나?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없었나? 이에 대해 증언자들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총살집행책임자는 " 대전형무소 학살이 끝난 뒤 보도연맹원과 좌익불순분자라는 죄목으로 연행해 온 5백 여 명을 처형했다"고 밝혔고 "상당수의 10대 소년들도 처형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밖에도 유가족들의 증언에는 농사짓던 아버지가 형님이 전쟁이 터지자 경찰에 끌려간 후 처형됐다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산내에서 좌익 정치범 처형사건 외에도 민간인에 대한 대학살이 함께 있었다는 증언은 '학살의 성격'을 달리하는 중요한 문제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증언과 사료조사가 필요하고 긴요하다.

#### 쟁점 6. 사건의 열쇠, 심중위를 찾아라!

당시 학살 현장 책임은 군인들이 쥐고 있었고 그 책임자가 심용현 중위였다. 따라서 정치범을 인계받고 현장 학살을 진두지휘한 심중위의 증언은 이 사건의 의혹을 푸는 '열쇠'라 할만하다. 그가 생존해 있다면 현재 나이는 약 80세 남짓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심중위와 그 소속부대원을 찾는 작업은 순조롭지 않다.

#### 쟁점 7. 당시 '수형인 명부' 있나 없나?

수형인 명부를 찾아내는 것은 희생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자료가 된다.



일단 제주 4.3 사건과 관련자 300여명의 수형인 명부가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견돼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당시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다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순사건 관련자 16명도 당시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증언이 확보됐다.

50년 10월경 대전형무소 수형인 명부와 당시 교도관 인사카드 등도 정부기록보존소가 보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유독 학살사건 당시의 '수형인 명부'만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찾을 수 없다" "자료가 없다"는 등 매우 미온적인 답변뿐이다. 정말 없는 걸까?

#### 쟁점 8. 정부, 왜 뒤집지고 있나?

잇달아 드러나는 한국전쟁 당시의 참혹한 실상들에 대해 정부의 태도는 매우 불성실하다.

충격적인 명백한 살인행위에 대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또 하나의 죄악"이다. 당시 비극적 상황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혀내는 일이 상처를 아물게 하고 '통일로 가는 수순'임을 정부가 정말 모르고 있기 때문일까.

#### 쟁점 9. 교회 건축 묵인, 현장 훼손 방지

2001년 10월, 학살현장 핵심부에 교회 건물(당초 '주택'으로 승인받음)이 들어섰다. 유감스럽게도 이는 동구청의 건축허가에 의한 것이었다. 유가족들의 항의로 건축중지명령이 내려지고 지난 2003년 대법원이 이를 '적합한 행정처리'로 재확인했지만 현재까지 교회건물은 불법적으로 사용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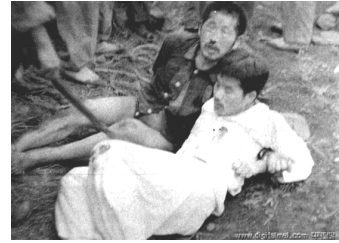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은 교회신도들까지의 마찰을 우려,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리를 포기하고 있다.

#### 쟁점 10. 대전형무소 우익인사 학살사건과의 연관성

유엔군 대전탈환 직전인 50년 9월 20일 경 북한군에 의해 수감돼 있던 대전충남지역 우익인사 약 1천 2백-1천600여명이 학살됐다. 이 사건은 정부의 대대적인 반공교육의 사례로 활용돼 교재로 활용될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1950년 7월 군.경에 의한 학살사건을 때 놓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9월 인민군에 의한 학살은 7월 학살의 보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양대 사건의 상처를 닫기 위해서는 주검에 대해 똑같은 대접을 통해서만 전쟁의 상흔을 닫고 상생의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 대전민간인희생자대책회의

우)301-825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내 전화/253-3383 전송/253-3384  
 담당자 / 김종현 회장(011-453-6969) 문양자 총무(011-9969-4386), 문창기 팀장 E-mail windowkey@empal.com  
 다음카페<http://cafe.daum.net/nacl1950>

※ 행사에 쓰인 주류는 (주)선양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